어린이 책꽂이

▲강아지똥 할아버지=‘강아지똥’의 저자 고(故) 권정생(1937~2007) 선생의 생전 일화들을 담은 그림책이다. 평생 자연의 품에서 작고 약하고 낮은 생명들과 함께했던 고인의 삶이 동화작가 장주식씨의 글과 서양화가 최석운씨의 해학적인 그림 속에 녹아있다.

〈사계절·9천800원〉

▲재개발 아파트=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미 시인의 첫 동시집. 시인은 녹록지 않은 재개발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현수네 빈집’ ‘타워크레인’ ‘오줌싸개’ 등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인의 따스한 시선으로 빚어냈다.

〈청개구리·8천원〉

▲방정환=초등학생을 위한 위인동화 ‘새싹 인물전’ 시리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평생 동안 어린이 사랑을 실천한 아동문학가 방정환의 일생을 담았다. ‘아이는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며 어린이를 위해 쉼없이 창작하고 다양한 소년운동을 펼친, 가슴 따뜻한 위인의 삶이 펼쳐진다. 〈비룡소·7천500원〉

▲아홉개의 바둑돌=2002년 ‘날아라 비둘기’로 황금도깨비상을 받은 작가 김종렬씨의 동화.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못다 한 주인공 주노, 어느 날 꿈에서 아빠의 영혼과 만나게 된다. 아빠에게 평소 싫어하던 바둑을 배우며 친구와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 〈파랑새·9천원〉

▲행복한 일등=점수나 수치로 환산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김재은씨의 동화다. 경쟁사회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왜 정당한 수단이 중요한지, 정정당당한 승리가 주는 성취감, 노력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이야기한다.

〈아이세움·9천원〉

▲달님이 성큼 내려와=유아용 그림책 시장의 스테디셀러의 작가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미발표 유작. 브라운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잠자다 미국 버몬트 주의 어느 농장 헛간에 있던 트렁크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6년 만인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다.

〈책꾸러미·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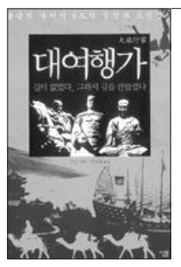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펭귄이야기=재일 한국인 3세 작가 김황씨가 펭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썼다. 황제펭귄, 케이프펭귄 등 18종 각각의 이름과 특징은 물론 펭귄의 먹이와 식습관,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의 특성과 펭귄의 언어 등 펭귄의 생태를 글뿐만 아니라 그림, 만화, 사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소개했다. 〈창비·1만원〉

▲구름의 전람회=‘나의 클리외르 아저씨’의 작가 이세 히데코가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구름’에 대해 쓰고 그린 책.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캔버스 삼아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으며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청어람미디어·9천500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라

대여행가

우한 지음



불평은 창조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라이스대 징 조우 박사는 굴착 장비 직원 149명에게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이들의 업무 능력을 확인한 결과 불평하는 직원일수록 더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낳는다.

중국 역사학자 우한의 ‘대여행가’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불굴의 도전정신을 발휘했던 중국 여행가 6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길이 없었다, 그래서 길을 만들었다’는 부제처럼 현실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 꿈을 펼친 인물들의 삶의 추적한다.

한나라 때 여행가이자 외교가 장건과 명나라 지리학자 서하객에 이르기까지 여섯 사람의 삶을 통해 성공비결을 소개한다. 각 인물의 도전 정신을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마라’ ‘하나에 미쳐야 일가(一家)를 이룬다’ 등의 소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장건은 서역 개척의 선구자이다. 한나라는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 자신을 압박하는 흉노족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大月氏)로 파견한다. 협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건은 길을 가던 중 흉노족에 사로잡혀 끈질길 회유 끝에 흉노족 부인도 얻고 자식도 낳는다.

흉노족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장건은 한나라 사절을 나타내는 물건인 부절(符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11년의 긴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 대월지에 찾아가 협공을 약속받고 1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던 장건의 개척정신은 실크로드의 확장으로 이어져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이다.

동진시대의 법현 스님은 열사의 사막에서 죽은 이들의 뼈로 방향을 잡았고, 65세에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인 최초로 중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까지 간 인물이 됐다.

바닷길로 귀국길에 올라 폭풍우 등을 뚫고 414년 산둥(山東)성에 닿았던 그는 귀국할 때까지 순방한 나라가 30개국을 넘었다. 또 여행기 ‘불국기’를 집필했으며, 인도에서 가져온 수많은 계율 경전 등을 번역해 중국 불교에 커다란 혁신을 몰고 왔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실존 인물이며,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저자인 현장 스님은 불학(佛學)에 대한 집념으로 서역을 뚫고 중국 최초의 인도 유학생이 됐다.

일본 율종(律宗)의 시조가 된 당나라 승려 감진은 폭풍으로 인한 난파 당하고, 열병으로 두 눈을 잃는 등을 어려움을 겪으며 여섯 차례 도전 끝에 일본행에 성공했다.

명나라 영락제의 신임을 받아 대함대를 이끌고 일곱 차례나 해외 원정에 나서 콜럼버스보다 1세기 앞서 아프리카 동부와 홍해까지 나아갔던 정화, 중국 산천과 동굴을 찾아다니며 지형과 지질을 과학적으로 기록한 ‘서하객유기(徐霞客遊記)’로 중국 근대 지리학을 세운 서하객의 치열한 도전정신이 소개된다.

이들 인물의 일대기를 소설처럼 흥미롭게 풀어냈으며, 풍부한 당시의 지도와 관련 그림 등을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살림·1만4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국 최초의 인도 유학생 현장 스님

스페인에 뿌리내린 정치이념들

스페인 내전

앤서니 비버 지음

현대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된 이념전쟁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전쟁이 바로 1936~1939년 3년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스페인 내전이다.

스페인 내전 종결 70주년을 맞아 출간된 ‘스페인 내전’은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를 제공했던 내전의 전모를 영국의 전쟁사학자 앤서니 비버가 세밀하게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 전쟁의 실상을 가려온 혁명적 낭만주의의 베일을 걷어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쟁의 맨얼굴을 보여준다.

특히 책에서는 왜 공화진영이 그토록 열렬한 세계여론의 지지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얻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끝없이 논란이 된 의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책은 이 밖에도 내전을 촉발했던 다양한 정치 이념들이 어떻게 스페인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고 내전 발발과 이후 전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조지 오웰과 앙드레 말로, 헤밍웨이 등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전쟁에 개입했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이야기까지 800여쪽의 두툼한 분량 속에 풀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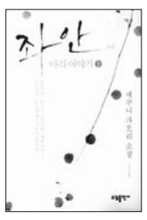
1982년 출간했던 저자의 책을 손질해 내놓은 것으로 2005년 스페인에서 출간됐다. 〈교양인·3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녀 주인공의 반세기 사랑

좌안…, 우안…

에쿠니 가오리 외 2인 지음



국내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와 츠치 히토나리가 10년만에 또 한번의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화제를 모았던 ‘냉정과 열정 사이’(1·2)는 두 작가가 각각 남녀 주인공 아오이와 쥰세이의 시선으로 사랑의 아련함을 노래,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다.

이번에 나온 ‘좌안-마리 이야기 1·2〈사진〉’, ‘우안-큐 이야기 1·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에쿠니 가오리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츠치 히토나리는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결과물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50년 동안 때론 만나고, 때론 헤어지며 인연을 나누고 사랑을 이어간다.

‘좌안’의 주인공 마리는 춤과 술과 남자를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반면 ‘우안’의 주인공 큐는 신비한 초능력으로 주위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다섯 살 때 이웃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였던 마리의 오빠 소이치의 죽음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펼쳐나가게 된다. ‘인생’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녀의 이야기가 두 작가의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전개된다. 〈소담·각 권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의 꿈과 상상력의 자서전

달나라 도둑

김주영 지음

‘객주’, ‘화척’의 작가 김주영이 인생의 길목에서 마주한 질문들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상상우화집 ‘달나라 도둑’을 펴냈다.

‘언제나 배고팠고 어딘가 아팠으며 무엇이든 골찌였던 어린 시절의 김주영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쓴 저자는 이 책을 ‘꿈과 상상력의 자서전’이라고 칭했다.

저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키워드는 길, 소년과 소녀, 이야기, 인생, 꿈 등 모두 6개로 모두 62편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글의 소재는 현실과 상상을 오고 간다. 작품 속 주인공도 사람, 장미, 늑대, 소 등 다채롭다.

책 속에는 병석에 누워 오직 바다를 꿈꾸다 한마리 돌고래가 되어버린 소년(바다가 보내 준 선물)이 등장하고 뭍으로 올라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고래도 만날 수 있다.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고 싶은 네팔 소녀가 꿈을 이룬 이야기며 어느날 갑자기 자신과 체형, 나이가 비슷한 사내의 뒤를 밟다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버려지거나 쓸모 없는 것들에 오히려 보석같는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전달체는 ‘상상력’이었다고 말한다. 〈비채·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 싼땅매매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쌀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망월동(청목동)2차선접 1종주거지역1,280㎡대 매가8억
·담양군 남면 구산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6,869㎡(2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급)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임야 83,558㎡(2차선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 3,000만원
·담양군 대덕면 성국리 임야 18,000㎡(국도접) 관리지역 매매가 1억 9,000만원
·담양군 봉 삼만리 전원주택지 1,400㎡(4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
·장성 백양사 부근 4차선접 주거지역 5,107㎡ 급매 ㎡당 6만원(평선, 상가, 식당 적합)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 2,210㎡ ㎡당 8만원
▶ 건물매매
·북구 문흥동 대지 396㎡ 건 1,791㎡(지하 1층지상 6층) 세 보증금 2억1,400만원에 월844만원 매가14억원5억4,000포함
·북구 두암동 상림최고 4거리 코너 대지 1,023㎡ 건5,473㎡ 세보증금 20억 월 4,000만원 매가 60억(용지 18억포함)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 512㎡ 건1,139㎡(지하1층 지상4층) 세 보증금 1억 9,000만원 월 650만원 매매가 9억 7,000만원(용자 5억포함)
·북구 풍향동 대지 127㎡ 건 192㎡지상 3층 매매가 1억 5,000만원(소방도로 x15m 코너)
·북구 용봉동 상대쪽문앞 대지 243.8㎡ 건물 710.5㎡ 세보증금 1억 4,300만원에 월730만원 용지3억 매매가 9억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주월동 대304㎡ 건496㎡ 1층 점포2~4층 원룸 및 투룸 세 보증금3,100만원 월70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신축)
·동구 산수동 대178.2㎡ 건324㎡ 투룸 6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에 월120만원 매3억2,000만원(용 5,000만원포함)
·북구 용봉동 상대 뒷편 대 332㎡ 건 902㎡ 건물 2동 고시원실 85실 월수입 약 1,59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용자 3억 8,000만원 포함 급매)
▶ 주유소매매
·동구 산수동 대지667.7㎡ 주유소 성업중 매매가 12억(용자6억5,000만원포함)
※ 주유소 부지, 시외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

국민공인중개사
☎ 핸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 상업지역 130P 삼각동
공시지가+건물과표13억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땅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 30m 도로 접
감정가3억8천매매가2억
▶ 잠실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32억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원 월2350만원 융 13억포함
감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 빌딩급매 대지500p건평1000p지하1층,지상5층전체공실
화순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융자 6억포함
화순,절터,요양원,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융자 15억 포함
▶장성임야사슴목장,별장 100000p 4억7천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함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문흥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복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062)531-4665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모텔
※수익성좋은물건다량확보※
▶신축모텔(매매,임대)◀
매매 10억~35억선
(융자안고 3~20억투자)
임대 : 보증금3억~7억
월 : 800~2500만원선
▶무인모텔(매매,임대)◀
매매 : 20~50억
(융자안고 10~20억투자)
임대 : 보증금4~7억
월 : 1000~3000만원
▶일반모텔(매매,임대)◀
매매 : 4억~30억원
(융자안고 3~10억투자)
임대 : 보증금1억~4억
월 100~1500만원
▶대중사우나(매매,임대)◀
매매 : 4억~50억선
(융자안고3~20억원)
임대 : 보증금1억~4억원
월200~1000만원
▶ 고 시 원 (매 매)◀
매매 : 5억~12억선
(융자안고 3~7억원)
※매매.매수.임대.임차 물건접수합니다.